

대림 제3주일

기도서 217면 (B해)

제1독서 : 스바 3. 14-18a

제2독서 : 필립 4. 4-7

복음 : 루가 3. 10-18

숲정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멀지 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루가 3. 16).

강론

오소서, 주 예수여!

한 봉섭 신부 / 고창주임

인간은 희망과 함께 하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기다림의 대상에 따라 설레임과 기쁨, 그리고 희망의 강도가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축일을 통하여 그 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세 번째 맞는 장미 주일입니다. 오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의 새 생활로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기쁨의 주일이며, 아울러 교회가 제정한 자선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절반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회개와 보속, 자선과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로 사도께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필립비 1, 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의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인가? 내 마음과 내 생의 중심에 자리하시는가? 나의 모든 사언행위(思言行爲)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지는가? 라는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내 생활을 예수님 앞에 정립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면서 선구자로서 세례자 요한은 대림절을 사는 정신과 생활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의 생활과 사랑의 나눔이 오시는 주님과 함께 구원을 누리는 삶의 길임을 제시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군중을 향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 받을 것이다.”(루가3.3)라고 선포했으며,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말고 험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회개하는 세리와 군인들에게 정의의 실천을 명하고 부정과 비리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공비리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 오늘 세례자 요한의 말씀은 많은 것을 깨우쳐 줍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용서하고 축복하여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즐거운 예수님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마라나 타! 오소서, 주 예수여!

소리

과연 그래야 할 것인가?

강원도 백담사 절간에서 수염을 기르고 장작을 패며 소 맨집이 강한 사람... 실컷 사람을 학살하고 전대미문의 거액을 거둬들이는 대역의 범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겨울 골목 모퉁이에서 칼바람 속에 오징어 몇 마리를 놓고 연탄불로 겨울을 이기며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눈시울을 본다.

우리는 어떠한가. 내 아이만은 만인지상이 되어야 했고 천재가 되어야 했으며 그러므로 노랗게 시든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본과 태권도 복을 입혀야 했고 생과자만을 먹여야 했다.

우리 아이들을 때린 놈은 잡아서 족쳐야 옳았고 울고 들어온 아이에게 왜 지고 사느냐,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악을 쓰기도 했다.

아이들이 「담다디」 노래를 부르며 질뚝거리는 춤을 추면 즐거워서 웃었고 “아빠 나 커서 돈 많이 벌래” 하는 놈에게 마음 든든했으며,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하고 아빠가 물으면 아빠가 더 좋고 엄마가 물으면 엄마가 더 좋다는 어린 것의 눈치 빠른데 그저 호모하기만 했다.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세밑에서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나설 것이다. 자선남비에 동전 몇 닢을 넣을까 말까 망설일 것이다. 그리고 불우 아동시설에 그들을 돕는다치고 신문과 방송에 자기 이름을 내며 밀물처럼 쇄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썰물처럼 조용해 질 것이다. 이 모든 명분과 형식을 존중하는 도시는 육교 위에서 밀고 있는 한 소년 앞에 라면 한 봉지 몇 개를 남기고 조용해질 것이다.

지난 해와 다름없이 올 해도, 올해와 다름없이 다음 해도.....

그래야 할 것인가? 과연 정말 그래야 할 것인가?



‘지옥’이란?

1. 호기심의 대상

우린 어릴 적부터 지옥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왔다. 과연 지옥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문제는 신학의 많은 주제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도 다루기를 꺼려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선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옥이란 일반적으로 얘기 되어지는 가소롭고 유치한 형벌의 장소는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지옥의 고통을 그러한 문학적 방법으로 표현 할 수 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표현하였는지는 모르나, 어린이들을 겁먹게 할 때나 사용되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식의 지옥 묘사는 단연코 배격되어져야 한다.

2. 예수께서는 지옥에 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지옥에 대해 언급하신다. 그러나 한번도 “그 지옥이 어떤 것일까?” 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진 않으신다. 오히려 주께서는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예수께서의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하는 경고였다.

3. 지옥은 최소한의 사랑마저 사라진 상태

우린 요즘 ‘광주 학살’ ‘삼청 교육대’ 안기부나 보안대의 ‘고문실’의 상황을 ‘생지옥 이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최소한의 양심과 사랑마저도 고갈 되어버린 채 미움과 저주만이 난무하는 상태. 이는 가히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케 한다. 너 또는 나,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영원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고 상상해보자.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지옥이란 미움과 저주로 펼쳐지는 상황의 최고의 형태를 의미한다.

사랑과 미움중 그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랑인 천국과 사랑을 포기해버린 지옥중 그 어느 편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깊숙한 곳에는 ‘사랑과 미움’중 그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난 지금 지옥(미움)을 키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서와 함께

31. 성서시대의 역사(L) : 로마시대

로마는 추측컨대 BC 753년 로물루스에 의해 창건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교하면 아모스 예언자 시대이다. 로마는 처음에 군주국이었으나 510년 공화국이 되었다. 국가의 확장은 서서히 진행되었다. 로마를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였다. 마침내 150년 로마는 카르타고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67년 폼페이우스는 지중해의 해적들을 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동쪽으로 이동하여 안티옥과 다마스커스를 점령해 버렸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었다. 대량학살을 자행한 후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짓밟았다. 폼페이우스는 그 당시 안티옥의 감독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유대인 지방영주 아리스토틀루스를 로마로 쫓아보내고 그의 경쟁자 히르카누스를 그 자리에 앉혔다. 팔레스티나 전역의 통치영역은 재편성되었다. 히르카누스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유대아, 이두매아, 갈리래아, 빼래아를 다스렸고, 사마리아는 시리아에서 통치하였으며, 요르단강 동부 연안에 자치적인 행정권을 가진 열개의 도시들 곧 데카폴리스가 새롭게 탄생되었다.

폼페이우스는 율리우스 체살에게 권력을 빼앗겼고 체살은 44년 자기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살해 되었다. 체살이 죽은 후 로마 제국의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차지한다. 안토니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의 클레오

파트라 여왕과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왕은 199년 안티옥으로 넘어갔던 유대아를 몹시 탐냈다.

안토니우스가 유대아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겨주기 직전에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들 중의 하나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히르카누스를 축출하고 팔레스티나의 통치권을 차지한다. 그가 하스모네아 가문의 마지막 왕인 안티고누스였는데 유대인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는 합법적인 상속자였고 히르카누스의 정치적인 고문들을 제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이두매아 사람들이었다.

헤로데는 히르카누스의 고문들 중 하나였는데 안티고누스의 숙청에서 살아남아 로마로 건너가 로마인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BC 37년 그는 로마군대를 힘입어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 안티고누스를 처형했다. 이어 그는 로마인들의 후광을 입고 유대아와 사마리아의 왕으로 책봉된다.

한편 클레오파트라의 성화에 못이겨 안토니우스는 헤로데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헤로데의 책략에 말려들어 뜻을 이루지 못한다. BC 31년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시키고 두 연인은 자살로 비극적 생을 마친다. 옥타비아누스는 BC 28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선포된다.

컴퓨터 시설로 자연 그대로
색상재현

미영칼라현상소

전 병전 (토마스모어)
이 영의 (투리모니아)

전주시 중앙동 3가 30(삼화약국 앞)

☎ 84-9286, 3651

방학 검도 특별지도

1. 정심집중교육
2. 신년화 교육으로 자신감 향상

세심경도체육관장

검도 6단 김 태경 (빈첸시오)

☎ 72-8009 (금암아파트 ← 백제로 중간)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술 · 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 (끝배)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선복대 앞 덕진성당 옆

☎ 72-2665

75-3533

교 구 소 식

1. 혼인강좌 : 18일(일)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5,000원
2. 교구단위 평신도 제단체 사목방문 : 17일(토) 오전10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3. 통신교리 : 1989년 부터는 모든 통신교리 업무를 교구 사목국에서 실시합니다.
4. 성소자 모임 : 광주 가톨릭대학 지방수험생 미사-11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5. 초등부 교리교재 신청(교구 전체 통일 교재 선정 사용) : 신청-12월16일까지 교육국으로 학년별 구분하여 가격-어린이용 1,000원(유치부-6학년) 교사용2,000원
6. 전주지구 가톨릭 기사회(성우회) 정기총회 : 18일 오후7시 곳-센터 평협회관
7. 자연가족 계획 교육 : 13일 오전10시 대상-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 장소-가톨릭센터 행복한 가정 운동(85-5098) *매일 오전9시-5시까지 교육함
8. 12월중 사제를 위한 수도자 및 평신도 교구 다락방모임 : 17일(토) 오후2시-4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강사-김환철 신부님 준비물-미사도구,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책, 묵주
9. 휘폴라레 피정 : 12월17일-18일 장소(천호피정의 집)
10. 동정성모회 성소자 모임 : 18일(일) 오후2시-5시 장소-이리 성모의원 원내 동정성모회 수녀원 지참물-신약성서 연락처(0653) 2-3783
11. 주소변경안내 : 나운동 천주교회
성당-군산시 나운동 843-6번지 전화63-8788
사제관-군산시 나운동 아리랑APT 라동 204호 전화63-8787

본 교구에서 실시하는 '시복 시성 및 성지개발' 봉헌서와 성체대회 전국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한 마음 한 몸' 봉헌서 기제는 개별로 하되 봉헌금은 단일화하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시복 시성 성지개발 위원회-

요십이 (8이) 김병오



잠깐 !

「만남」을 보고나서.....

†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 신앙을 청합니다.

†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

●

세레 때 사제와 예비신자들과의 응답이다. 과연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객관적으로 우리 한국 초기교회의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댓가는 참혹하리만큼 잔인한 것이었다. 무엇을 주기는 커녕 인간적인 모든 것을 앗아갔다. 부모, 자식, 가문과 집, 사랑하기에 함께 살고 싶은 부부, 친척, 동료와의 삶, 심지어는 한가닥 남은 목숨까지도 처절하게 앗아갔다. 신앙이 그들에게 준 것은 파멸과 멸망, 멸시와 조롱, 그리고 죽음이었다. 그러나 어리 석게도 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빼앗기면 빼앗기는 만큼 그 믿음은 더욱 굳어만 갔다. 죽으면 죽을 수록 교회는 더욱 커갔다. 열이 죽으면 백이, 백이 죽으면 천이, 천이 죽으면 만의 신자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하였으리라!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주길래 저토록 죽기까지 충성을 다 하는가?」하고, 이 질문은 결코 어제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삶을 보고 던지는 질문이어야 한다. 자신들의 삶과는 어딘가 다른 우리 네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질문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들도 ●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며 함께 응답할 수 있어야 겠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준 문화방송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해태우유특약점장 및 판매사원 모집

1. 모집지역 : 특약점장 - 전주 · 이리 · 김실 판매사원 - 전북지역 30명
2. 문의처 : 전주시 금일동 78-1 1. 66-566. 5-056

해태우유(주) 전주지점

흥익미술학원

- '89 정규반 원아모집
- 5세 유아반 · 6세 유치반 · 7세 취학준비반
- 겨울방학특강반 모집
- 국·교·영·한 · 국·지·영·한 · 송중·한

원장 김 승균 (아우투스티투스)
원감 이 가우 (홍익아나)
(이리 마동A.P.T. 앞)
☎ 2-8692, 51-0548

전북의료조합 지정 이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전문의 이 종두 (헨리교)
김 성자 (젤마나)
중앙국교양, 팔달로 건너편
☎ 83-3113, 3112

전북 의료보험조합지정
김안과의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 렌즈
원장 : 김효열 전은주 (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 85-3020

개원
문진군치과의원
전문의 문진군 (요한)
관동로사거리 서울신탁은행맞은편
☎ 86-4528

“발표력을 기릅니다. 웅변을 배웁시다”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구.서중로터라) ☎ 3-3284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 앞) ☎ 4-3948
효자웅변종합학원 (효자쌍용APT 앞) ☎ 83-8331~2
원장 유병철 (베드로) · 원감 박경애 (인젤라)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 *오늘은 자신의 날:** 불우한 이웃을 위한 2차 헌금 바람
1. 합동 판공성사: 12월 12일 저녁 7시
 2. 세례 대상자 집중회: 13일-17일 저녁 7시30분
 3.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4. 부녀회 상임위원회: 13일 어머니 미사후 5. 형제회 월례회: 16일 오후 2시
 6. 공소 판공성사: 신원리 14일 10시, 왕정리 15일 10시, 다리리 15일 4시, 황운리 16일 10시, 신교리 16일 4시
 7. 초·중·고등부 판공성사: 초등부-17일 오후 2시 중·고등부-18일 오전 9시
 8. 반미사 감사헌금: 총1,302,000원 여러분의 성의를 신축헌금으로 봉헌합니다.
 9. 축 결혼: 18일 12시 신랑 박평주(시몬) 신부 김애자
 10. 교무금 완납 요망 성탄이 오기전에 책임의무를 다합니다.
 11. 탈상미사: 16일 오후 3시 송화자모친 이마리아(성황당고개일)
 12. (C.N.C) 회원모임오늘(11일) 오후 3시
- 지난주봉헌금: 723,130원 □교무금: 1,620,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 *오늘은 자신의 날:** 2차헌금
1. 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2.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3. 빈첸시오회: 오늘 꾸리아후 4.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후 5. 영세 예정자 집중교리: 12-17일 오후 7:30 6. 대학응시자를 위한 미사: 13일 오후 7시
 7. 부녀회: 15일 오전 10시 8. 영세식: 18일 공식미사중 9. 성우회: 18일 공식미사후 10. 요셉회: 18일 저녁미사후
 11. 성탄복권행사: 경품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2. 성탄판공성사: 22일(목) 오전 10-12시, 오후 2:30-5시, 저녁 7:30-10시 13. 반회장 회합: 13일 오전 10시
- 금주성당침소: 월-검은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금주전례: 해설-업윤영 독서①유경수 ②이현정 봉헌-육경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강인 독서①김정두 ②김순정 봉헌-김정두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439,290원 □교무금: 893,9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1. 자신의 날: 오늘 2차 헌금 있음
 2. 성가정회: 공식미사후
 3. 가톨릭 농민회: 임원개편및 임시총회-오늘 오후 7시30분
 4. 청년회: 차주 공식미사후
 5. 시복시성 성지개발 봉헌봉투: 사무실에서 접수함
 6. 가을 판공성사
15(목)-오전 10:30-세대주 전체연담
16(금)-의암,마치,수월,내아,공기,서당,색장
17(토)-샛터,내정,백암,남관,중·교생
18(일)-주일학교(오후 4시)
20(화)-오후 7시-내어두,외어두,색장,신홍,신리,기타
 7. 대입 수험생을 위한 미사: 14일 7시
 8. 혼인감좌: 혼인 당사자들은 꼭 참석요(18일 9시 가톨릭센터)
- 지난주봉헌금: 174,710원 □교무금: 167,500원

*서화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이순성
사무실 84-2276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 *금주강론:** 고백성사②
- *금주의 헌금지향:**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
1. 회의: 방저거3회, 전례부회, 성심회-13일(화) 성가대월례회-17일(토), 반장회-공식미사후(광교지배소)
 2. 모임: 반모임-금주내(참고지공부) M.E모임-15일(목)
 3. 알릴: 봉성체-14일(수) 성탄성가연습(토) 오전 10시, 일요일 공식미사후
 4. 판공: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초등부 6시부터 8시 중고등부 19일 오전-1,2,3반 오후-4,5,6반 20일 오전-7,8,9반 오후-10,11,12반 21일 오전-13,14,15반 오후-16,17,18반 22일 오전-19,20반 오후-21,22,23반 23일 오전-24,25반 오후-26,27반
- 지난주봉헌금: 459,280원 □교무금: 779,000원

*전동

사제관 82-6232·82-7245 주임신부 이수
사무실 84-3222·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진
유치원 84-8347·레지아 83-5085 사목회장 안득

- *오늘은 자신의 날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자모회: 오늘 오전 10시 2. 사목회 임시총회: 오늘 오후 7시 3. 영세식: 17일(토) 오후 3시, 환형축하식-영세식후(소강당에) 4. 영세자집중교리 안내: 12일(월)-16일(금) 오전 10시30분, 저녁 미사후 *통신교리수강자도 집중교리 신청바람 5. 축! 돈보스코회 창립: 회장-노병섭(프란치스코) 형제-30-40대형제님들의 전원 가입을 바랍니다. 6. 판공성사표 배부및 세대주 면담시 교무금 완납바람(12일-17일): 각동 구역별 세대주 면담 배정시간은 전동지와 계시관 참조바 7. 판공성사: 19일-22일 *애령회비-매년봉. 가을판공때 세대당 2,000씩납부(초상, 기일시 모든 해당가정에 정해진대로 협조) 8. 레지아회의: 다음주 오후 2시 9. 사목회: 다음주 오후 7시 10. 본당100주년 사무실 자원봉사자 1인모집: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약간 지급)
- 지난주봉헌금: 1,073,660원 □교무금: 980,000원
□나눔의 헌금: 72,430원

*효자2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성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

1. 영세식: 17일(토) 오후 1:30 영세자 특별교리-12일(월)-16일(금) 오후 7:30 2. 자모회 월례회의: 16일(금) 어머니미사후 울뜨레아 월례회의-17일(토) 저녁미사후 3. 꾸르실료 신청: 남성 1월9일(월)-12일(목), 1월 26일(목)-29일(일), 2월 23일(목)-26일(일) 여성 1월 23일(월)-26일(목) 4월 13일(목)-16일(일) 신청바랍니다. 4. 초등부 성탄음악: 10일(토)-23일(금)
 5. 베소라성사: 매주 월요일 9:30 미사후 6. 판공성사: 12일(월) 저녁 7시(화) 우진1, 2반 14일(수) 무궁화, 용성 15일(목) 반여매 후곡 호암 16일(금) 신주1, 2반 16일(금) 오후 7:30 중앙반 공사 직장인 판공성사-17일(토) 19:30-21:00
 7. 차주모임: 18일(일) 9:30미사후 청년회 월례회의 축 혼배성사: 18일 12:30 신랑-윤승호 신부-이미정
- 금주전례: 해설-문옥선 독서①권일만 ②표순례
차주전례: 해설-문옥선 독서①양석우 ②유옥순
- 지난주봉헌금: 317,020원 □교무금: 810,000원
□신축헌금 유미: 50,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1. 가을판공성사: 12일(월) 오후 7시-10시
 2. 대입자를 위한 미사: 13일(화) 저녁미사
 3. 구역형제회: 15일(목)전 11시-5,6,7,8,9 후3시-1,2,4 후8시-27,28,29 16일(금)후 8시-3,10,11,13
 4. 사목회: 17일(토) 후 8시-89년 사업계획및 예산편성
 5. 심포회: 18일 공식미사후 6. 대의원 총회: 18일 공식미사후 7. 사목회집담 선출: 18일 공식미사후
 8. 88년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89년 교무금을 사무실에 신입해 주십시오.
 9. 감사합니다: 박경환 형제님이 성당 운송기를 기증해 주셨습니
 10. 금주전례: 해설-박연희 독서①이봉연 ②송용자 봉헌-박종구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덕자 독서①김광택 ②한소자 봉헌-김나섭 부부
- 지난주봉헌금: 307,170원 □교무금: 532,000원
□자선헌금: 27,650원
□신축헌금인출액: 135,076,776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환
수녀원 84-4804

1. 성탄예비자 영세식: 18일(일) 오후 5시 집중교리 13(화)-1(토) 오후 7시30분(교육관) 2. 성탄대축일 성가연습: 계시관 참
 3. M.B.W 교육에 수고해 주신 강사분과 참가자에게 감사
 4. 판공성사: 일정 계시관 참조 추계 참고지 지침
 5. 88년 교무금속히 납부해주시고 89년 교무금 정성껏 신일함
 6. 모임안내: ①본당울뜨레아-오늘 11시미사후 교육관 ②모니카회-테레사회-금주 수요일 11시 7. 특별헌금: 정병수 300,000원 김정래, 익명 각 200,000원 안남근 150,000원 은영수, 익명, 1종일, 백성숙 각 100,000원 안균, 양윤정, 김학동, 김영주, 서민석, 이정순, 이옥분 각 50,000원 양광식, 김영수, 김희곤, 김중술, 안각 30,000원 임희준, 김영관 각 20,000원 계 1,780,000원 누계 11,120,000원 8. 금주성당침소: 서한산동2가 서편 다음주-효자동지 동편 9. 전례담당: 계시관 참조 10. 불우이웃돕기: 성미성금 운동에 참여합니다.
- 지난주봉헌금: 868,870원 □교무금: 1,823,000원
□기사회헌금: 114,610원